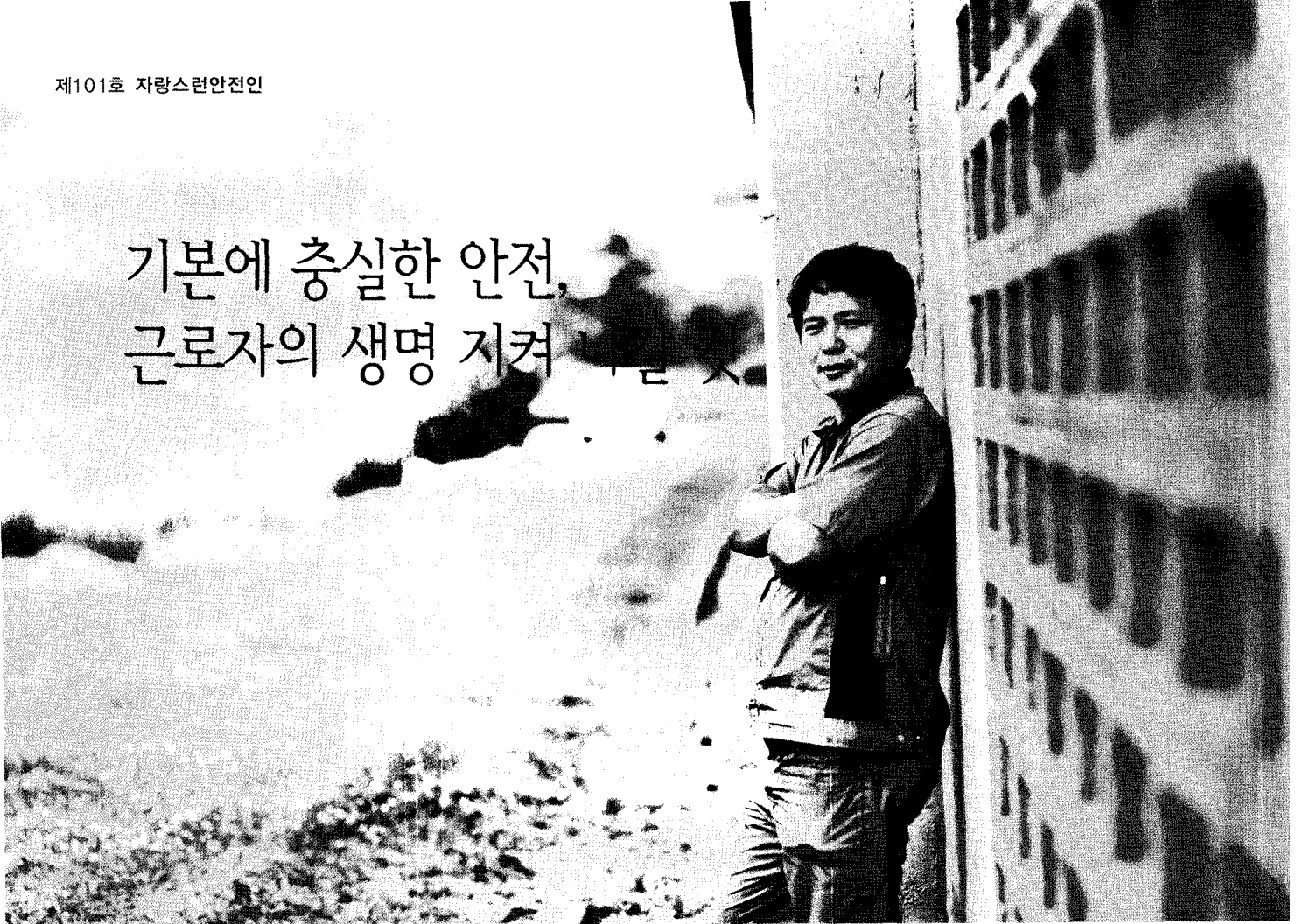


기본에 충실한 안전, 근로자의 생명 지켜주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6월 중순의 어느 날, 높은 습도와 뜨거운 열기로 잠깐의 움직임에도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린다. 소나기라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달린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다시 당진상주간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대한방직 주식회사, 새로 들어선 도청과 네모반듯한 아파트 숲에 1975년에 지어진 공장의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지만, 어딘가 모를 여유가 느껴지는 풍경을 자아낸다.

대한방직(주) 전주공장 **이인탁**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세월이 묻어 있는 오랜 전통의 대한방직(주) 전주공장, 이인탁 안전관리자를 만나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방직주식회사 전주공장은 1975년에 완공되어 우리나라 섬유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다. 방적(실을 생산하는 작업)과 방직(옷감을 생산하는 작업)을 겸하고 있는 이곳 공장은 6만 6천여평의 넓은 부지에 1공장, 2공장, 직포, 창고,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월 방적 75만kg, 직포 51,000m를 생산하고 있다. 총 근로자 220여명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 대한방직(주) 전주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인탁 안전관리자, 그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 자랑스러운안전인이다.

올해 마흔 여섯의 그는 구리빛 피부에 꾸미지 않은 순수한 표정에서 여느 시골 마을에서 만났을 법 한 모습이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밖에서 점심을 다녀온 온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져 있다. 1990년 충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는 대한방직(주) 본사에서 사회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대구공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곳에서 생산관리업무와 안전관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가 안전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 4학년 때 선배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하며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했고, 결국 그 인연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고 한다.

설비 노후화와 안전의식의 결여

1997년 대구공장에서 다시 이곳 전주공장으로 전근하면서 그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본격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술한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며 공장에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우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다. 1980년 대 안전을 처음 접했을 당시, 눈부신 경

제발전을 이룬 성과 뒤에는 언제나 산업재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했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기계와 노동집약 산업의 대명사였던 섬유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결여된 근로자의 안전의식으로 크고 작은 재해가 빈번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했던 안전관리자로 그는 노후된 기계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동안 해 오던 작업방식을 고치고 노후된 기계에 많은 비용을 들여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년 간 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사고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열악한 작업환경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어린 여직공의 안타까운 사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

20여년 안전관리업무를 해 오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쳤다. 특히 대구공장에서 안전업무를 하던 때 어린 여직공이 한 순간의 실수로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큰 화상을 입었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 산업체로 지정된 터라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가난한 고학생들이 많았다. 밤잠 설치며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한 어린 여직공이 졸음을 견디지 못해 깜빡하던 순간 재해가 발생했다. 아직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17살의 어린 그 여직공은 수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안전관리업무를 하던 그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사고는 더 많은 배움과 안전에 대한 열정으로 안전관리업무에 철저히 매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근로자는 나의 가족,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터

안전관리자로서의 보람은 무엇보다 무사고, 무재해 달성에 있다. 십 수 년간 같은 직장에서 동고동락해 온 근로자는 그에게 있어 혹은 서로에게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족이 다치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루하루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잘못된 작업방법이나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일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간혹 그의 안전지도에 불만인 근로자를 대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오랜 동안 그런 일에 익숙한 베테랑 안전관리자인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그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터득해 온 그만의 온화한 말투와 방식으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평소 안전교육을 하면서 그는 근로자들에게 행복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자신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한다. 누가 대신 안전을 지켜주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는다. 또 사고는 운이 나쁜 사람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평소 정해진 작업순서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방직(주) 전주공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은 실천”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올 해도 무사히 안전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그는 기원해 본다. ☺



▶ 뒷줄 왼쪽부터 이인탁과장 김병연사원 김상희대리 윤건식사원 강성대처장
▶ 앞줄 왼쪽부터 정순임사원 이동준사원 김은미사원 정미화사원 한제식대리

